**Profile**

**Violinist 유시연**

우아한 해석과 음색에 대한 천부적인 섬세함, 특유의 고전적인 순수미를 바탕으로 바로크부터 현대, 클래식 음악과 세계의 민속음악을 오가며 새로운 음악적 결실을 일구어가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시연. 선화예고 재학 시 동아콩쿨에서 1위로 입상한 그녀는 서울대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커티스 음악원에서 학사를 마친 뒤, 영국 왕립음악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Artist Diploma를,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현재 교육자이자 솔로이스트, 그리고 Trio de Séoul 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에서 데뷔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네덜란드 순회공연을 가졌고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 등지에서 리사이틀과 협연을 하여 전문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갔다. 한편 2008년과 2009년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캄머 잘에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후원으로 베를린 데뷔 리사이틀을 열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매년 하절기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리는 Cambridge International String Academy의 교수로 초청되어 마스터 클래스와 연주를 하고 있다.

유시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작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유시연의 테마 콘서트’를 꼽을 수 있다. 고전 레퍼토리는 물론 탱고, 민속음악, 바로크, 종교음악 등을 심도 깊게 연구하여 바이올린 음악의 지평을 확장해왔고, 2012년에는 SONY 레이블에서 [Pasion, Amor & Piazzolla]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했다. 또한 그녀는 국악에도 관심을 보여 우리 소리에서 사용되는 농현, 시김새, 음영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하여, ‘아리랑’, ‘보허자’, ‘한오백년’과 같은 작품을 통해 국악과 서양음악의 융합을 새로운 장르로 개발하여 2014년 새 앨범 ‘회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유시연의 홈페이지 www.siyeonryu.com**